

2021 경기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공모지원사업 심의 총평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신청해 주신 모든 예술가와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경기센터는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사업별 외부전문가 심의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분야별 심의위원을 3배수로 추천하고 우선섭외대상순서에 의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약 18%가 증가한 총 289건의 공모지원서가 접수되었으며, 최종 60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공모사업의 진입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신진단체와 활동가를 발굴하고자 추진하였던 통합공모(난생처음 꿈지, 신박한 실험과 도전)에는 총 90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97건, 지역특성화 일반공모 70건, 지역특성화 기획공모(거점지원) 32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은 4.8:1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분야별 심의 총평을 알려드립니다.

<통합공모 ① 난생처음 꿈·지>

본 지원 트랙에서는 시작하는 단체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분명하고 솔직한지,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진입에서 단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단체들의 발견으로 설렘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직 기존의 도구적 문화예술교육의 한계에 머무르는 기획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행정과 제도의 경직됨이 만든 결과인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현장을 지지하는 이와 같은 트랙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생태계의 말랑말랑함이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심의 과정을 통해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단체, 다른 장르에 대한 궁금증과 네트워킹에 대한 목마름, 특히 힘겨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동료 그룹을 만들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동시에 미숙할 지라도 처음의 출발을 지원하는 우호적 지원 사업에 대한 단체들의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선정 후 경기센터에서 주관하는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통합공모 ② 신박한 실험과 도전>

신박한 실험과 도전에 응모한 많은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제안한 공모 유형에서 단체의 고민과 하고 싶음을 읽을 수 있었기에 향후 더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을 통해 본 사업의 확장을 요구합니다.

참여(응모)단체의 기획서와 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된 몇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된 단체의 경우라도 사전워크숍과 협의를 통하여 좀 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차원의 사려 깊은 지원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선정된 단체의 적극적인 사고와 도전의식이 기타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사업명에 비하여 신박한 실험과 도전의 내용이 부족하였습니다. 단체 중심의 집중고민의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참여자를 대상화 시켜 훈육하고 일방적 지식 전달을 강요하는 기획서가 많았습니다.
2. 신박한 실험과 도전에 대한 문제 설정 자체가 되지 않고 기존 방식을 답습하려는 기획서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3.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주저하게 만드는 기타의 요소(행정, 공모의 한계)에 대한 면밀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2021. 3. 31.

심의위원	설동준	(사)피스트레인 사무국장
심의위원	조재경	고무신학교 교장
심의위원	임상빈	시각예술가. '잔피' 작가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총 97개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의위원간 집중논의과정과 개별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최종 선정단체 20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여 일상 속에서 다양한 예술경험을 추구하는 창조적인 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단체 중에는 단순한 기술교육에 그치거나, 장르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 또는 융합형 예술교육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혼합 자체에 치중하여 자기 정체성을 명료하게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 되어 아쉬웠습니다.

연속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해 온 단체 일지라도 단체의 경험을 토대로 충분한 자기연구와 개발, 주제의식 그리고 환류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 3. 31.

심의위원	김혁진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연구위원
심의위원	임상빈	시각예술가. '잔피' 작가
심의위원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일반공모>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의지들을 신청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인내심을 갖고 해온 주체들과 함께 새롭게 자기 그라운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소수지만, 젊은 주체들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심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을 대하는 태도의 근대성이나 매너리즘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겪은 개인, 사회의 문제의식들이 다양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으로 연결되거나 스며들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더 기획자·예술가들이 자기 삶의 문제를, 성찰과 각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 실천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기획되고 탐색되면 좋을 듯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제공이거나 솔루션으로 문화예술을 도구화하지 않고, 자기 질문을 풀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기획공모>

‘거점’에 대한 단체의 정의와 접근 비전이 제시된 곳과 그저 단순히 지원예산만 고려해서 신청한 곳 다수 있었습니다.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다르고, 특히 공공재원의 주도성이 큰 문화예술교육에서 민간주체가 주도하는 거점의 역할과 조성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의 지원사업 트랙으로서가 아닌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책적 관점에서 ‘거점’에 대한 관심,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지, 지원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이 공공의 역할에서 필요하고,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현장과 함께 교감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인식하길 바랍니다.

2021. 3. 31.

심의위원 임재춘 커뮤니티 스튜디오 104 대표
심의위원 설동준 (사)퍼스트레인 사무국장
심의위원 조미자 진접문화의집 관장